

“지역발전, 행복생활권 중심 상향식 추진”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정부 최대의 지역발전 촉제인 '지역희망박람회'가 올해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일보는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을 만나 광주 박람회 특징과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등에 대해 들었다.

-이번 지역희망박람회의 특징은.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3박4일간 개최됐고 올해는 장소를 광주로 옮겼다. 올 박람회는 지역행복생활권 같은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첫 수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품보다는 사람과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했고 디스플레이도 콘텐츠별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광주지역에 미칠 기대효과는.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 된다. 광주시와 광주시민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국내외에서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문가들과 광주의 미래전략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박람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전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전 정부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가.
▲잡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에서 무거운 뒤서, 세종시·혁신도시 같은 물량 분산형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MB정부 때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서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권역

별 선도산업을 육성했다.
박근혜정부 정책의 차별성이라면, 행정 권역을 넘는 실제 생활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섬세하게 다가서고 정책 추진방식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또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아닌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발전위가 컨트롤 타워

부처간 협업 맞춤형 지원

광주서 열리는 희망박람회

사람·이야기 콘텐츠 강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중요 성과를 꼽는다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최종 목표를 향한 여정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기존 정책에서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복지·보건·의료·환경시책을 추가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56개를 만들었고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중기별정 계획으로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동력은 무엇인지, 또 광주·전남지역의 생활권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역발전위와 더불어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는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추진축이다. 광주·전남에는 7개의 생활권이 있

다. 광주는 빛고을 중추도시권 내에서 한 뿌리 생활권 프로젝트,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협력, 꼬막배양장 공동 활용, 동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등 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지역발전위가 의결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도별로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화예술마을과 아시아 음식문화 자구를 조성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 구상을 가지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6000km가 넘는 해안선과 2200여개의 섬 등을 활용, 서남해안 관광허브를 조성하고 해양레저장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점을 둘 분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도 전국에는 농어촌 오지 격리마을이 1200여개가 있고, 도시에 350여개 취약지역이 있다. 화강실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들이 많다. 이같은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불결로부터, 기초인프라 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발전위와 더불어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는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추진축이다. 광주·전남에는 7개의 생활권이 있

다. 광주는 빛고을 중추도시권 내에서 한 뿌리 생활권 프로젝트,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협력, 꼬막배양장 공동 활용, 동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등 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고다마 신달타 고행상을 처음 보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3년,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갔을 때, 나는 고행상 앞에 3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이 진공상태가 된 듯 아무 생각도 없었다. 2~3세기쯤에 무명의 석공에 의해 편안에 조각된 고행상, 움푹 들어간 깊은 눈과 불거진 광대뼈, 겨우 머리를 받쳐줄 정도로 가냘픈 목 뼈와 손에 잡힐 듯 앙상하게 드러난 방패 같은 갈비뼈 등 너무 처연하여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였다.

신달타는 6년 동안 감식(減食)수행을 했다. 쇠똥을 먹기도 하고 참깨 한 알만으로 하루를 견뎠다.

배가 고파 눈에서는 별이 어른거렸고 몸은 부서진 수레처럼 허물어져갔다. 그러나 얼굴에서 고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거부죄를 들고 양손을 퍼서 위 아래로 포개고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맞댄 선정인(禪定印)에 든 모습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신달타는 고행 중에 "몸의 피가 마

분노가 영여되었다. 풍성한 구레나룻과 긴 수염은 사대부의 뺨뺨한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생명감이 넘치면서도 귀기가 느껴질 정도로 유연(幽玄)한 분위기가 마치 감동했다.

그가 세상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속종 때 남인과 서인의 당쟁으로 남인이었던 윤두서 집안은 정치적으로 꺾박을 당했다.

이때 셋째 형 윤종서가 거저로 유배를 당해 끝내 죽었고 공재 자신도 큰형 윤창서와 함께 모함을 당해 죽고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친구 이장도 이때 속종의 분노를 사 죽임을 당했다.

26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장성한 꿈을 키웠던 공재는 집안이 당쟁으로 휘말리게 되자 출사를 포기하고 그림으로 마음을 달랬다.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의 선비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외도임에 분명한 일이다.

그는 출사를 포기하고 원망과 분노와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을 택

공재 자화상과 신달타 고행상

르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를 것이다. 한 것이었다. 그런 그의 자화상에는 뼈저린 시대적 고뇌가 담겨있다. 그의 눈빛에는 우수와 고독과 비장함도 함께 깃들여있다. 22세에 아내 전주이씨와 사별했고 생부와 생모, 큰 자부를 거둬 잃었다. 그는 세상을 뜨기 2년 전, 자화상을 그리 무렵인 46세에 술기하여 해남으로 귀향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남으로 귀향했을 때의 심경은 참담했으리라. 이런 연유로 공재의 자화상은 강한 정신세계의 내면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나는 신달타의 고행상은 어쩌면 그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 또 하나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신달타가 얻은 것은 선정 같은 평화이고 깨달은 것은 공(空)이었을까.

나는 지난 일요일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다. 광주국립박물관 공재 유적전에서였다. 공재 자화상 앞에 서 있는 순간 31년 전 라호르 박물관의 뼈가 앙상한 신달타 고행상이 떠올랐다. 큰 유리상자 안에 넣어 진열된 공재 자화상을 한 시간 가까이 다리가 저리도록 서서 들여다보던 나는 온 몸이 전율을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의 낯빛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린 얼굴. 두툼한 얼굴에 푹푹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은 섬세한 표현에 매료되었다.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나를 노려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

한 것이었다. 그런 그의 자화상에는 뼈저린 시대적 고뇌가 담겨있다.

공재의 자화상은 행장기를 잃지 않아도 고뇌에 찬 삶과 화도(畫道)의 경지에 이른 예술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신달타 고행상에서 갈이 가리얏은 눈빛의 평화를 보았다면, 공재의 자화상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한 예술가의 처절한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람브란트, 고흐, 고갱, 피카소의 자화상을 통해서도, 예술가의 삶의 기록과 시대의 아픔, 고뇌에 찬 영혼을 읽을 수가 있다.

공재 자화상을 보고 전시장을 나오면서, 나 자신은 어떤 자화상을 그릴까 생각해보았다. 원망과 분노보다는 세속적 욕망을 비워, 텅 빈 평화의 얼굴이었으면 싶었다. <소설가>

국토부 “경전선 목표~순천 운행 폐지 보류”

“해당 지자체·주민 입장 고려”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목표~순천 구간 무궁화호 운행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전선 목표~순천 노선 폐지를 반대하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오는 24일자로 해당 노선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코레일(철도공사)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전선 부전역(부산)~목포역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는 24일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 철도노선에 대해 공공기관에 보전하는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해당 노선이 폐지되면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는 지 등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는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인 순천~목포 열차 운행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영·호남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이 동반성장하라는 정책에 반하는 열차운행 폐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보성군의회, 화순군, 순천시 등도 “목포~순천 노선은 지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 교류역할에 중요한 통로”라며 “지역균형 개발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전선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성만 따져 돈되는 철도노선만을 운행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누려야 할 서민열차의 교통복지 감탈행위”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내 22개 시·군서 여권발급 가능

내년 2월부터는 무안·신안군을 포함한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외교부가 '1개 행정구역 내 1개 대행기관'이라는 기존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일 “신안군은 옛 청사가 목포시에 있었고, 무안군은 전남도청이 무안군에 있어 대행기관 지정이 어렵다고 밝혔

던 외교부의 입장이 변경돼 내년 2월부터 22개 시·군 모두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충규 전남도 도민소통실장은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민소통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장 오창렬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3대 원장에 전 광주SW지원센터 소장 오창렬(53)씨가 임용됐다. 진흥원은 지난 9월25일 임기가 종료된 진흥원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해 지원한 10명을 상대로 응모 서류 전형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거쳐 원장임용 후보자에 오 전 소장을 선정했다.



신임 오 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광주SW지원센터 소장, (재)광양만권u-IT연구소 소장, (주)엘시스 이사 등을 역임하며 정보통신(IT)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Website : http://www.suibe.co.kr E-mail : littlechina@hanmail.net
Tel : 서울 02)-722-8805 광주 062)226-8511 상해 86-21-51099118

2015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